

# 해남군 '124개 사회경제기업 운영' 경제 활력 박차

## 지역경제 한 축 다양한 지원 사회적문제 해결 가치 추구

해남군이 지역경제의 한 축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위해 올해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관내 124개 사회적경제기업 운영과 12개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7일 해남군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이란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

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의 4개 유형이 있다.

해남군 내에는 사회적기업 9개소를 비롯해 마을기업 20개소, 자활기업 6개소, 협동조합 87개소 등 총 124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역경제의 튼튼한 밑거름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민선7~8기 중점과제로 선정해 지역내 다양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

고 있다.

올해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국도비가 축소됨에 따라 군은 자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4개사업 1억 2000만원의 군비를 추가 편성하는 등 12개 사업, 7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인력지원, 사업개발 등을 지원한다.

새로 신설된 사업은 마을기업 분야에서 올해 처음 3개소 연합 마을기업에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하는 지역플랫폼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의 성과로 해남군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행안부 주관 2022년 사회적경제 육성 우수사례로 뽑히는데 이어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국가의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축소된 가운데 군비를 늘려 자체사업을 신설하는 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계속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 한상표 '임자도의 바람' 사진전 신안 조희룡 미술관서 내달까지

신안군은 5월31일까지 한상표 사진작가의 임자도의 바람 드론 사진전을 조희룡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전 개막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와 한상표 사진작가를 비롯해 신안군의회의원, 관광객 등이 함께했다.

이번 전시는 임자도의 바람 이란 주제로 하늘에서 바라본 임자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드론 사진으로 포착한 사진 작품 20점을 전시해 관광객들에게 임자도의 신비한 모습을 보여준다.

한상표 작가는 드론을 활용해 자연의 모습을 섬세한 감성으로 담아내어, 대한민국국제포토페스티벌 코리아포토상 수상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진작가로 인천광역시에서 활동 중인 현직 한의사이기도 하다.

한상표 작가는 "임자도의 바람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그것이 불어오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그 바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라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그 이야기들을 사진으로 담아 관객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 어르신 염색 봉사활동 한여농강진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강진군연합회가 지난 4일, 강진읍(초동마을)에서 어르신 염색 봉사활동을 가졌다.

7일 한국여성농업인강진군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봉사는 지난 2월29일, 성전면(수양·농정·송천마을)에서 가진 염색 봉사활동에 이어 두 번째로, 회원들은 앞으로도 읍면을 순회하면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여성농업인강진군연합회는 매년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돕고, 농촌의 제반 문제 해결 및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반찬 나눔과 염색 봉사활동, 환경정화활동 등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 해오고 있어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양임 회장은 "어르신들이 좋아해 주시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염색 봉사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최영아 소장은 "봉사활동에 앞장서시는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따뜻한 농촌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 대한민국주류대상 기념 이벤트 장성 청산녹수, 편백숯막걸리2 반값



장성에서 막걸리, 탁주 등 전통주를 생산하는 청산녹수(대표 김진만)가 지난 5일 열린 대한민국주류대상에서 탁주부문 대상 수상을 기념해 특별 할인판매에 나섰다. 제품은 '편백숯막걸리2'로 50% 이상 할인해 준다. 주문기간은 8~12일이며 발송은 17일 진행된다. 포장 택배비는 별도다.

김진만 청산녹수 대표는 "15년간 남의 손을 빌렸다가 양조장을 완전히 접수한 지 5개월째 됐다"며 "최고의 주질로 다양한 품평회 상장 콜렉터로 나설 첫걸음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엄격한 심사에 따라 수상작을 가리고 전통주의 저변확대를 위해 각계가 나서야 한다"며 "그러나 상업주류와 공방형주류는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수상주류들이 원활한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지난 4일 한국여성농업인강진군연합회가 강진읍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염색 봉사활동을 펼쳤다.

강진군 제공

## 무안 일로농공단지, 청년친화형으로 정비

준공된지 30여 년이 넘는 무안군 일로농공단지가 리뉴얼 사업 등을 거쳐 청년친화형으로 새롭게 정비된다.

무안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4년도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일로농공단지가 선정돼 국비 42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패키지사업은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노후 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으로 지방비를 포함해 60억원이 투입된다.

군은 1992년 준공돼 시설이 노후화된 일로농공단지 근로환경을 개선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농공단지로 변화시킨다

는 계획이다.

청년문화센터는 57억원을 투입해 현재 사용 중인 식당과 관리사무실 등을 리모델링해 다목적 회의실, 공유오피스, 동아리 활동실과 관리사무실을 조성한다.

2층 1동을 신축해 1층에는 식당과 카페, 체력단련실, 2층에는 13실 규모의 기숙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기숙사는 타지역 출퇴근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역 내 거주를 유도해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에는 10개의 입주업체가 참여하고 노후한 공

장 시설 보수와 복지 공간 정비에 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일로농공단지에 부족했던 편의시설과 근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무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로농공단지는 일로읍 상신기리 일원에 16만8000㎡ 면적으로 1992년 준공돼 현재 23개 업체가 입주해 299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무안=김행연 기자

##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쿠킹 클래스' 시즌3 운영

목포시는 4월부터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에서 '쿠킹클래스 시즌 3'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쿠킹클래스는 목포의 다채로운 맛을 만들어보고 맛볼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며, 4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아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로컬 육아 크리에이터에 배우는 키즈 쿠킹클래스(2회), 커플이 함께 피크닉 요리들을 만드는 커플 클래스(2회), 목포의 디저트 맛집 대표에게 직접 배우는 디저트 클래스(2회), 목포 고유의 식재료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쿠킹 클래스(5회) 등 모두 11회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매회 20명을 모집하며 오

는 13일 첫 번째 커플 클래스가 진행된다. 관심있는 경우 목포시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스타그램, 링크트리, 카카오톡)에서 '목포는맛있다' 계정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번 시즌에는 해관의 야외공간을 활용해 각 클래스별 주제에 맞는 문화공연을 추가해 기존 쿠킹클래스와 차별점을 두었다.

프로그램이운영되는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은 옛 목포세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활용한 음식, 문화, 역사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젊은 세대를 겨냥한 미식 콘텐츠를 발

굴해 목포만의 차별화된 맛과 특색이 있는 장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쿠킹클래스를 시작으로 목포 미식문화를 알리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맛의 수도 브랜드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 음식 축제인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와 2024 남도 주류페스타가 10월에 열리고 2025년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국제 행사 규모로 키운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9~10월 개최될 예정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 화순 '반려식물의 향연' 19~28일 고인돌유적지

화순군은 19~28일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지에서 열리는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 행사장에서 '2024년 다육가드닝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화순군이 주최·주관하고 화순다육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40팀을 선발하고 19일 2차 현장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발한다.

다육 매니아들이 가드닝 테이블(가로 1.5m×세로 0.9m)에 직접 키운 작품을 출품하며 △아름다운 수형 및 건강한 컬러 △화분과의 어울림 △인테리어 소품 활용 △감각적 표현을 통한 나만의 작품 연출 등을 심사한다.

이번 다육가드닝 대회는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와 연계해 반려식물 다육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다.

축제장에서 반려식물 다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화순군 지리적 표시 농산물 '작약'으로 만든 차광용 향주머니를 다육 2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다육가드닝 전국대회를 통해 관람객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왔고 다육이 많은 이들의 반려식물로 자리 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전남일보 페이스북 facebook.com/jnilbo